

‘기억’을 바탕으로 한 서술적 장신구 제작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금속공예학과

이슬기

2014

목차

머릿글

1/ 연구 배경

(1) 이야기

(2) 재료로써의 사물

2/ 연구 목표

몸글

1/ 기억과 의식의 흐름 수법

2/ 참고작가

Lucas Samaras

맺음글

머릿글

1/ 연구 배경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풀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때문에 흥미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들려주기위해 경험을 기억하고 되새기곤 한다. 때에 따라서는 그 경험이 부풀려지기도 하고 또 다른 경험과 섞이기도 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늘 내 머릿속을 채우고 있고, 이야기들은 서로 중첩되어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기억을 정리하고 되새기는 습관은 때로는 일기 형식의 글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는 이미지화 되어 작업의 모티브가 된다.

재료로서의 사물

기억이 닿는 과거의 어느 순간부터 나는 종종 한 곳을 가만히 바라보며 공상을 하는 시간이 많았다. 바라보는 대상은 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이었다. 특히 그중에서도 다른 사물들이 서로를 비추면서 새로운 조각들을 만들어 내는 유리, 금속 등 빛을 반사하는 재질의 사물을 관찰하기를 좋아했다. 상이 차려지기 전 깨끗한 식탁 위 유리에 비친 샹들리에와 나의 모습, 빛, 조각들의 연속은 나에게 공상을 위한 많은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주었다.

재료가 갖는 고유의 색과 재질감은 그 자체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또한 그러한 특성들은 개인적인 사람의 눈에 의해 구별되며, 판단된다. 때문에 작가의 눈으로 바라보고 구별된 재료들은 그 작품 안에서 독특하게 위치한다. 그것들은 새로운 존재감을 갖는 창조물이 된다. 재료를 바라보고 관찰하며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들 역시 흥미로운 작업의 소재가 되며 작업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2/ 연구 목표

경험, 지식, 그에 따른 나의 생각들이 '기억'으로써 정리되어있다. 이러한 '기억'은 주체가 '나'이며, '내'가 경험하고 배운 것들이 '나' 만의 방식으로 나열되고 저장된 셈이다.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기억(의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서술하는 기법을 '의식 흐름 수법' 이라고 한다. 기억의 장면들을 '의식 흐름 수법'을 통해 장신구로 표현하고자 한다.

몸글

1/ 기억과 의식의 흐름수법

기억

인상, 지각, 관념 등을 불러일으키는 정신기능의 총칭. 사람이나 동물이 경험한 것을 특정 형태로 저장하였다가 나중에 재생 또는 재구성하는 현상이다. 새로운 경험을 저장하는 작용, 기명된 내용이 망각되지 않도록 유지하는작용, 유지하고 있는 사항을 회상할 수 있는 활동을 기억의 3 요소라 한다. 기억은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데, 시간적 측면에서 불필요하면 잊게 되는 단기기억과, 장시간, 때로는 평생 동안 유지되는 장기기억이 있다. 기억은 대뇌피질의 감각연합역에 저장되고, 해마는 기억형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해마는 각종 감각연합역과 후내역을 매개로 정보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 자기연상형 폐회로를 형성하고 있어, 기억정보를 저장하기 쉬운 형태로 부호화하여 연합영역으로 되돌리는 기능을 갖는다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기억 [memory, 記憶] (생명과학대사전, 2008.2.5, 아카데미서적)

의식의 흐름 수법

의식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정신(mental) 영역에 대해서 사용된다. 정신분석학에서 의식은 무의식(unconscious)과 대립하며, 현상학에서 의식은 대상들의 중심이며 언제나 무엇인가 '에 대한 의식'이다. '의식의 흐름'은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1890 년에 사람의 정신 속에서 생각과 의식이 끊어지지 않고 연속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처음 쓴 말이다. 현대소설, 특히 심리주의 소설의 창작 기법인 '의식의 흐름'은 소설 속 인물의 파편적이고 무질서하며 잡다한 의식세계를 자유로운 연상작용을 통해 가감없이 그려내는 방법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문학적 방법이지, 실제 의식의 흐름 자체는 아니다. '의식의 흐름' 수법을 사용하는 소설은 외적 사건보다 인간의 내적 실존과 내면세계의 실체에 관심을 집중한다. 내적 독백(interior monologue)은 '의식의 흐름'의 다른 명칭이자, '의식의 흐름'을 나타내기 위한 수법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우리 문학에서 '의식의 흐름' 수법을 선구적으로 형상화한 작가는 이 상이다. 이 상의 「오감도」 연작과 「거울」 등의 시와 「날개」, 「종생기」 등의 소설에는 복잡하고 기묘한 의식의 파편들이 인간의 내면세계를 축약한 암호처럼 펼쳐져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의식의 흐름 [Stream of consciousness] (문학비평용어사전, 2006.1.30, 국학

'의식의 흐름'은 소설의 1 인칭 주인공 시점 중에서도 주인공에게 벌어지는 일을 주인공의 의식속에서 서술하는 기법이다. 때문에 그 이야기는 서사이기보다는 주인공의 개인적인 독백, 공상에 가깝고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나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등학교 때, 이상의 '날개'라는 소설을 접하고 이야기의 내용보다도 그 형식에 크게 흥미를 느꼈다. 자신의 상념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 자체가 이야기가 되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주인공이 상황을 경험하고 그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주인공의 머릿 속이 재미있게 묘사되어 마치 주인공에 머릿속을 드러다 보는 착각마저 일으킨다.

경험, 지식, 그에 따른 나의 생각들이 '기억'으로써 정리되어있다. 이러한 '기억'은 주체가 '나'이며, '내'가 경험하고 배운 것들이 '나'만의 방식으로 나열되고 저장된 셈이다. '의식의 흐름'수법을 통해 내가 갖고 있는 '기억'을 이미지와 형상들로 나열하고 연결시켜 이야기를 서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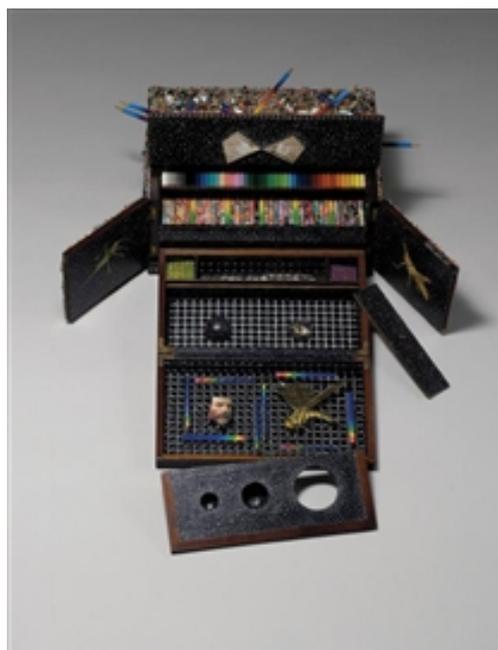
2/ 참고작가

lucas samaras (루카스 사마라스)

1936. 9. 14~. 그리스 출신의 미국 오브제 작가. 가스드리아에서 출생. 1948년 미국에 건너가 60년대 초부터 특이한 오브제 작품으로 주목을 끌었다. 코넬을 연상케 하는 상자의 작품이 많고, 상자 안에는 바늘과 거울 같은 것의 단편이 가득 채워져 있고 저속한 색채로 칠하여져 있다.

960년 봄, 사마라스는 회화 작업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인 '발견된' 오브제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박스, 핀, 못, 깨진 유리, 면도날, 깃털, 금속 박, 백열전구, 거울 같은 물신숭배적인 오브제들을 조합했고, 자신의 사진을 포함하기도 했다. 사마라스의 작품에는 그의 자화상은 많이 등장한다. 그는 1964년에 맨해튼으로 이사해, 그린 갤러리에 뉴저지 침실을 그대로 옮겨와 설치했다. '뉴저지 침실'의 개인 소지품들과 미술 작품들로 갤러리를 채움으로써, 사적인 공간은 공적인 공간으로 변형되었다.

사마라스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징성을 띤 사물들을 박스에 넣고 배치하여 흥미로운 상황을 연출하였다. 기존의 사물을 예기치 않은 곳에 두어 새로운 오브제를 창조하였다.



Lucas Samaras_box

맺음글

‘기억’을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갖는 소재의 가능성이 매우 다양하여, 논문 주제로 잡기에 다소 포괄적인 주제라고 생각되기도 한다. 때문에 소재를 선택하는데 있어 깊은 사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억’의 주체인 ‘나’는 구체적이며 개인적인 소재이므로 ‘나’의 시점에서 흥미롭게 주제를 풀어나갈 것을 기대한다.